

“ 크리스천 지성인 ”

■ 이종윤 원로목사

지성인과 지식인은 구별된다. 지성인은 지식을 갖춘 전문인 일뿐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줄을 아는 지혜인이다.

지성인은 개인은 물론 민족사회의 안개를 헤치는 등불이 되어 인간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작용을 한다.

크리스천 지성인은 인간의 교만한 지식에 힘을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침을 찔러 그 힘을 빼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것을 지성의 비판작용이라 한다.

대학사회나 지식인에게 비판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면 학문은 더 이상 학문으로서 가치를 상실케 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비판과 비난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난은 부정과 파괴를 위한 것이라면 비판은 선과 악, 거룩함과 속된 것, 아름다움과 추함, 진리와 거짓을 분간하는 명철(明哲)인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 작용은 지식활동에 속했다기보다 지성작용에 속한다.

비판을 통해 악과 거짓이 추방되고, 굽은 것이 곧게 펴지는 것이기에 학문연구에서 비판 작용이 결여된다는 것은 매우 위태로운 것이다. 지성의 비판 작용을 학문이 바탕으로 삼은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는 정당성에 있지 않고 진실성에 있다. 진리는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논리적으로 정당하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성사회는 그러므로 정당성보다 진실성을 강조하고, 지성인은 사실과 진리만을 주장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크리스천 지성인이 조심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낭만과 청춘이라는 특권 아래 숨겨진 감정적 흥분과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학문하는 사람은 항상 진리를 찾고 배우는 마음으로 겸손히 타인의 생각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 문제를 문제로 이해하고 질문할 줄 아는 자유자다.

편견에 얽매인 개인이나 사회는 진리에 접근하기보다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적인 틀 속에 집어 넣어 버리려는 악습에 빠지는 이는 지성인이라 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적, 반지성적, 파괴적 비난들은 학문 활동을 고체화시키고 진리를 찾는 일을 방해할 뿐이다.

크리스천 지성인은 진리 편에서야 하고 자신의 욕망도 자제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인한 인내와 진리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다. 크리스천 지성인은 하나님 면전에서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투철한 역사의식을 갖고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그 변수와 영원히 변치 않는 상수를 동시에 보되, 변수에서 상수를, 상수 속에서 변수를 읽는 양식(良識)을 가져야 한다.

지식과 감성 즉 좌로나 우로 치우침이 없는 성숙한 조화로운 인격을 갖춘 인간상을 지성인이라 부른다. 냉철한 지성과 온화한 감성을 겸비하고, 이상과 현실, 자유와 책임, 보수와 혁신이 높은 차원에서 승화되어 성숙한 전인격적 차원의 능력을 갖되 미래에 대한 부단한 모험정신과 새로운 역사 창조의 의지로 현재뿐 아니라 급격히 변천하는 지식과 환경을 이해하고 응용할 줄 아는 창조적 인물이 지성인이다.

거기에 더하여, 크리스천 지성인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사랑과 화해, 관용과 덕을 쌓되 미래 소망을 가진 인물이다. 학문의 지고성과 이데올로기적 확신을 상대화 할 수 있는 영적 성숙성을 지향하는 크리스천 지성인은 오늘의 문제 이해와 현실과 미래에 대한 자세 또한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 안에 성숙한 크리스천 지성인의 수가 점차 많아지기를 바란다.

-한국장로신문 2013년 6월 1일 발채-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장마철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하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7월 셋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영유아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사랑부 여름수련회가 진행되고, 22일(금)~23일(토)에는 초등부의, 23일(토)~24일(주일)에는 유년부의 여름성경학교가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위해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717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해(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뿌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은혜 입은 한 사람 ”

■ 창세기 6:1-8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선한 결과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오래된 명저가 있습니다. 그는 집단이 개인의 총합보다 죄를 더 많이 범한다고 지적하면서 교회가 비도덕적 사회의 집단적 불의와 폭력을 용납하지 말아야 세상이 희망이 생긴다고 역설했습니다. 대홍수의 주역인 노아의 생애를 이룬 차원에서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최악이 가득했던 시기에 홀로 세상의 흐름에 맞서서 저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의로운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9절)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때 그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희망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1.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던 시대

하나님의 기쁨이 근심과 한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배경을 6장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1)인간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가치기준이 세상을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의 가치를 외모에 두고 인간적인 조건에 두었던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타락한 정신으로 보셨습니다. 2)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 없이 오직 자기감정과 말초적 욕망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실패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21:25) 노아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기 원했고 각자의 욕망을 분출시켰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포악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고통과 절망이 있습니다.

2.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결심하십니다. 건물이 낡고 위험하면 집 주인은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수리하고 고쳐서 다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완전히 허물고 재건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시대의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서 고치고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다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파멸에 목적을 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심으시고 다시 건설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 21:1) 요한계시록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징벌하고 청소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으로 역사를 종결지으시는 분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의 새 역사가 시작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낡고 병든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게 하신 후 새 하늘, 새 땅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3. 은혜 입은 한 사람

하나님의 심판과 재창조의 역사에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아입니다. 온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근심과 고통이 되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자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 노아를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본문 8절에서 그가 ‘여호와께 은혜 입은 사람’이었다고 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의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 이 노아가 역사의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은혜 입은 한 사람이 됩시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일예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이강인 장로
II 오전 11시	장석남 목사	차영도 장로
III 오후 2시	김익환 목사	김익환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시 67:3-4...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9(1절)...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6(시 10)...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337(363)...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창 6:1-8...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은혜 입은 한 사람”...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459(514)...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양예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76:10 인 도 자
 찬 송 369(487) 다 함 께
 기 도 양승호 집사
 찬 송 365(484) 다 함 께
 성 경 엡 4:26-27 인 도 자
 성경대학 수료식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성경으로 직면하기 : 분노(1)” ... 설 교 자
 * 찬 송 441(498)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 I부: 김영숙11 권사 II부: 임미경 권사
 성 경 삼하 15:1-1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하2

설 교 손달익, 김익환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유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엔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창 6:8)		
수요I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금주의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성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모임

- 마리아 전도회 월례회 / 17일(주) 2부 예배 후 802호
- 한나 전도회 월례회 / 17일(주) 3부 예배 후 502호
- 에스터 전도회 월례회 / 20일(수) 수요일 1부 예배 후 802호

알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1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후 12시10분
- 603호 부서 모임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장민혁1	A팀	청년부	장정인	한두희	6-5	빌 립	노인숙
이상규1	1-11	안드레	정승자	이가연	6-5	도르가	노인숙
조영희3	4-9	사 라	위성남	이승애	6-5	엘리야	노인숙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658명	466명	2,124명	424명	2,116명

2022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부 서	일 정	장 소	주 제	담당 교역자
영유아부	7/16(토)-17(주일)	서울교회	찾았다, 하나님 나라! (막 1:15)	강남희 전도사
유치부	7/16(토)-17(주일)	서울교회	찾았다, 하나님 나라! (막 1:15)	허은 전도사
유년부	7/23(토)-24(주일)	서울교회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세대! (요일 5:4)	조동수 목사
초등부	7/22(금)-23(토)	아가페타운	교회가 좋아요 (마 16:18)	이대원 전도사
중등부	7/29(금)-31(주일)	아가페타운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청소년 (빌 2:5)	정기성 전도사
고등부				김예지 전도사
청년부	8/12(금)-13(토)	아가페타운	언약백성으로 살아가기 (출 19:5-6)	안용곤 목사
사랑부	7/16(토)-17(주일)	서울교회	함께 가는 사랑부 (마 2:13)	전재홍 목사

청결 유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일 성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